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PETROLIMEX

회사명 : TẬP ĐOÀN XĂNG DẦU VIỆT NAM(영문 : VIETNAM NATIONAL PETROLEUM GROUP)
페트로리맥스는 베트남 무역부에 의해 1957년에 설립된 국영석유회사이며(정부 지분 75%), 베트남 내수 석유 시장 점유율 상 1위 기업이다. 회사 직영 주유소가 2700곳, 대리점 주유소가 2800곳 운영 중이다. 현재 사업분야로는 석유무역, 원유정제 석유화학사업을 비롯해서 보험, 가스, 결제, 운수산업과 항공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또한 41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다. 페트로리맥스의 주요 서비스로는 PLC, PGC, VIPCO, VITACO, PJICO 등이 있다.

주주	주주 수	지분율
국내 개인	8,360	1.56%
정부자산관리위원회	1	75.87%
자사주	1	7.97%
노동조합	1	0.39%
국내 기타 단체	47	0.82%
일본 IX 에너지	1	8.00%
해외 기타 단체	91	5.32%
해외 개인	213	0.08%
총합	8,715	100%

-PETROLIMEX 2019 연말보고서 기준



자사주 2500만주 매각

페트로리맥스는 2019년과 2020년에 자사주를 각 3200만주, 2800만주 매각했다. 2019년 매각에서 3200만주를 판매하여 2조동을, 2020년 매각에서 1.344조동을 조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페트로리맥스는 2020년 9월 정부자산관리위원회와의 회의에서 2021년에도 추가적인 자사주 매각 필요성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이어진 매출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신규

출처: [VietnamFinance\(링크\)](#)

불황 터널 헤메는 페트로리맥스 석유 그룹...적자 눈덩이

베트남 최대석유판매기업 페트로리맥스 석유 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 65 조 1000 억동(3 조 3552 억원)을 기록한 반면, 1 조 800 억동(556 억 5000 만원) 적자를 봤다. 작년 상반기 2 조 6000 동(1340 억원)이상의 흑자를 낸 실적이 무색해질 정도다. 페트로리맥스는 지난 1 분기 세후이익이 1 조동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2 분기 세후이익은 7331 억동(375 억 3472 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 대비 45%나 떨어졌다. 첫번째, 세계 석유 가격이 올해 1 분기 말에 급격히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하는 바람에 지난 1 분기와 같이 재고 가격 인하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전국에 있는 주요소에서의 휘발유 판매량도 1 분기에 비해 11%증가하면서 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감소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항공 연료 사업 분야에 포진한 계열사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각 건설업 공사 지연, 제조업 공장 가동을 하락 등으로 당초 영업실적 목표치에 70%만 달성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 [AseanDailyNews\(링크\)](#)

주요기사

항공유 수요 감소에 페트로리맥스 이익 74% 하락

지난해 페트로리맥스 순이익이 1.23조동(5369만 달러)에 그쳐 5년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말까지 결국 국제선이 전편 유보되며 항공유 수요가 급감하고 전국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내 교통수요도 크게 감소했다. 이에, 매출은 35% 감소한 124조동, 연간 이익은 74% 감소한 4.77조동에 그쳤다.

출처: [vnexpress\(링크\)](#)

제약산업 위축 아닌 개편

지난해 제약업계는 3% 성장에 그쳐, 지난 5년간 평균 11.8% 성장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M&A활동이 두드러져, 총 1.68조동(7300만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거래가 있었다. 그 중 SK그룹이 Imexpharm 제약을 9200억동에 지분 25%를 인수한 것과 일본의 Aska제약이 Ha Tay 제약 지분 24.9%를 인수한 것이 손꼽힌다. SSI증권은 급속한 인구 노화와 소득 증가로 인해 2021년에는 제약산업이 15%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처: [vnexpress\(링크\)](#)

베트남 E-스포츠 시장 전망

정보통신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은 2015년 이래로 2배 성장하여 12조동 규모에 이른다. 또한 방송당국 관계자(ABTEI)에 따르면, E-스포츠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지난 5년간 3배 증가했다. 베트남 전국적으로 3200만의 이용자가 있으며, 25000명이 해당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외국산 게임에 시장이 장악된 것이 주요 문제이다.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 중 69%는 중국산 게임으로, 총 87%의 게임이 대한민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또한 불법게임의 확산 역시 큰 문제이다. 허가받지 않은 게임의 매출액은 연간 3.25억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게임들의 매출액과 같은 수준이다.

베트남 현행법상 해외 게임사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20~30일이 소요되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청년동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지 업체와 협업하거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현지에 설립하는 방식 중 양자택일이 가능하다.

출처: [Vietnamnews\(링크\)](#)

금융

VN지수 큰 폭으로 회복

지난 2월 2일 VN지수는 3.86%(40.02p) 회복하며 1075.53p로 올라섰다. 호치민 거래소 상장 종목 중 331개 주식이 상승, 130개 주식이 하락했으며, 총 거래량은 다소 낮은 13.16조동(5.71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2020년 3월 25일에 미국에서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하며 4.71% 상승한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VN-30지수는 구성종목인 30개사의 주식이 모두 상승하며 4.84%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빈홈즈, 빈껌리테일 등 빈그룹 관련 주들이 크게 상승했다.

같은 날 HNX지수는 3.12%, UPCoM지수는 0.82% 상승했다. 해외투자자들은 총 85억동을 순 매수했으며 매수세는 주로 호아팻그룹, 비나밀크, 빈홈즈에 집중됐다.

출처: [vnexpress\(링크\)](#)

지난 해 회사채 시장 38.8%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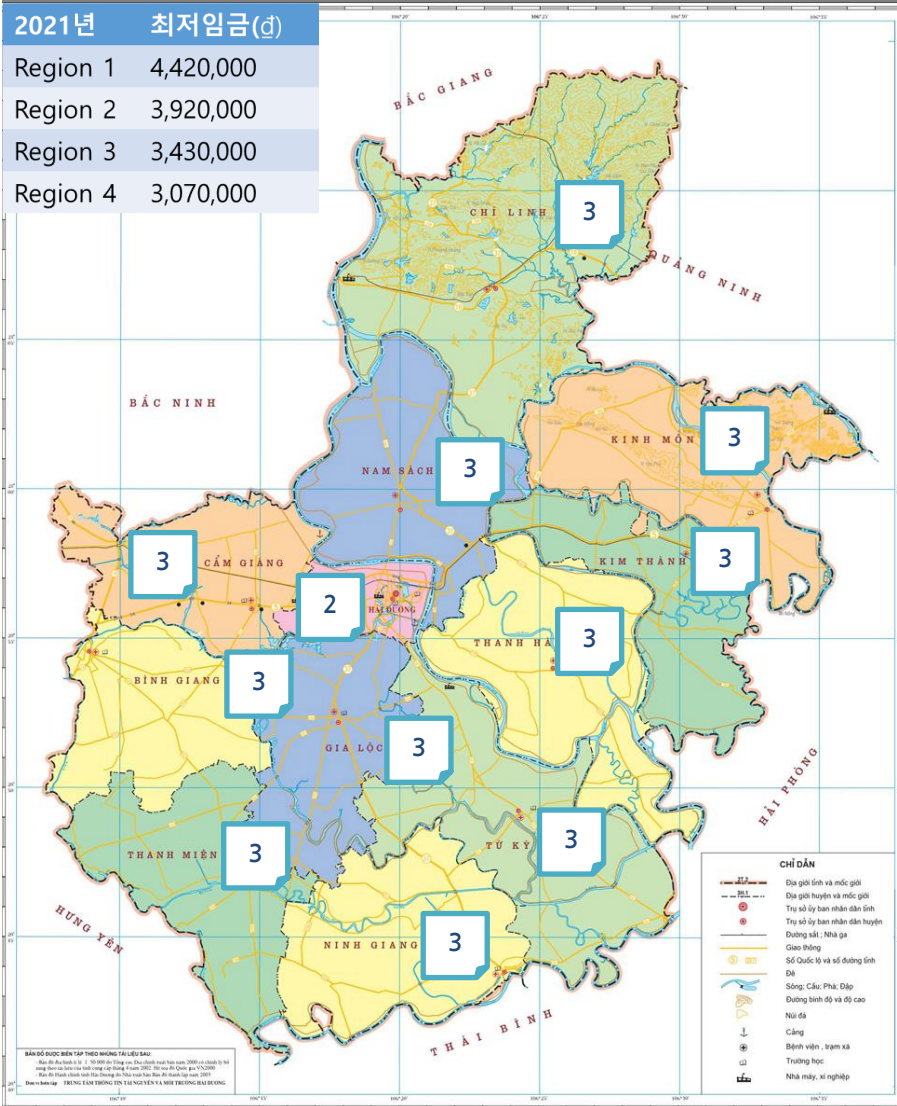
증권사 VNDirect에 따르면, 지난 해 회사채 시장은 38.8% 성장하여 437.6조동(190억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 업계 1위는 신용기관(25%기여), 2위는 부동산(16%기여)이다. 사모사채는 30.4% 증가한 403.46조동이며 공모사채는 82.7% 증가한 34.2조동이다.

출처: [vnexpress\(링크\)](#)



하이즈영성

2021년	최저임금(đ)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Hải Dương

인구: 1,892,254명(2019년 4월 기준)
 인구분포: 농촌-68.07%/도시-31.93%
 면적: 1,684km²
 입지: 박닌성, 박장성, 광닌성, 흥연성,
 하이퐁, 타이빈성과 접경 / 5번, 18번,
 183번, 37번 고속도로 통과
 행정구역: 2개 시(하이즈영 시, 찌린 시)
 / 1개 시사 / 9개 현으로 구성

삼성베트남, 하이즈영성
기업역량개선 지원

삼성베트남이 공상부와 공동으로
 하이즈영성지역 기업의 역량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은 베트남주형정밀기계, 동방,
 카맥스베트남, 히엔레무역, 남팡 등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선다.

지난 수년간 현지기업의 역량개선을
 지원해온 삼성은 1차 협력업체가 2014년
 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2개로 크게
 늘었다. 연말까지 이 수는 50개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Insidevina\(링크\)](#)

Phuc dien industrial zone

면적: 87ha

입지: 5번 국도 인접(하노이-하이퐁) / 하노이로부터
 43km / 하이퐁으로부터 62km

교통: 30m/23.25m(메인도로), 17.5m(외곽도로)

전기: 110/35KV / 지하전력망 운용

공급용수: 4,400m³/일

폐수처리: 4,000m³/일(업체에서 C레벨에 맞춰 배출하면
 공단에서 B레벨로 정화하여 배출함)

입주기업: 포스코 베트남 가공센터, 비나리프트 외 일본계
 기업 다수 입주

출처: [BTD japan\(링크\)](#)

Dai an industrial zone

면적: 121ha

입지: 5번 국도 인접(하노이-하이퐁)

교통: 지역별로 55m, 39m, 37, 35.5m, 33m, 17.5m,
 15.5m(메인도로)

전기: 22KV, 35KV, 110KVA

공급용수: 11,000 m³/일

폐수처리: 5,000 m³/일(자원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장
 측에서 B레벨에 맞춰 배출해야 함)

입주기업: 현대케피코, 듀링 베트남, 명신 테크 비나

출처: [VIIPIP\(링크\)](#)

롯데

롯데면세점 현지 투자 확대

롯데면세점은 2017년 베트남 면세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현재 다낭, 깜란, 하노이에 공항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베트남을 대외 진출 1차 목표로 선포하여 올해는 다낭과 하노이에 시내 면세점을 열겠다는 취지이다.

베트남 면세시장은 주로 현지 유력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남부 공항서비스JSC는 툰넛 국제공항에, 노이바이 공항서비스JSC는 하노이 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는 현재 스위스의 듀프라이 AG, 미국의 DFS에 이어 세계 3위의 면세점 사업체이다. 롯데는 베트남 현지 수요에 발맞춰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자사 베트남 온라인 면세점에서 2021년 상반기 전자지갑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현지 은행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럭셔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명품점포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또한 처음으로 유럽을 추월한 것이기도 하다. 해외 관광객이 부족한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인 면세 우대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현지 고객의 가처분 소득 증가 역시 큰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Goodmorningvietnam\(링크\)](#)

롯데마트, 베트남 '잘로페이' 파트너십 체결...디지털 결제 확대

롯데마트가 베트남에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베트남 대표 전자결제서비스 잘로(Zalo)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금없는 결제를 강화했다는 것. 이를 계기로 롯데가 강조하는 디지털 혁신이 해외 사업장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베트남에서 잘로페이와 협업해 전자결제 활성화에 나선다. 롯데마트에서 쇼핑 후 결제시 현금 대신 잘로페이 앱을 열거나 쿼알(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하면 된다. 한국의 카카오� 결제 서비스와 비슷하다.

한편, 현재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은 갈수록 커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 베트남 모바일 결제시장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8.2% 성장해 2025년엔 7억9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THEGURU\(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1998년 롯데리아가 호찌민에 1호점을 오픈하며 발빠르게 진출했다. 롯데마트는 2008년 12월 국내 유통업체 중 가장 먼저 '남사이공점'을 열었다. 당시 6200평 규모로 단일 쇼핑센터로는 베트남 최대였다. 롯데쇼핑은 2012년 2월 베트남 미디어 그룹 '닷비엣'과 합작법인 롯데닷비엣을 통해 24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등이 시너지를 이루어 '롯데센터 하노이'에 입점했고, 현재 롯데그룹이 베트남에 진출한 분야는 백화점 /마트/호텔 /외식프랜차이즈/시네마/화학/건설/복합개발/물류/IT/광고대행/렌터카/면세점/통합멤버십 서비스에 달한다(2020년 말 기준).

롯데그룹 자회사 중 롯데 GRS(롯데리아)와 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는 그 중에서도 현지 시장을 크게 장악했다. 롯데리아는 베트남 현지에 241개 점포를 운영하며 2014년부터 4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롯데시네마는 2008년 5월 DMC(다이아몬드 시네마)를 인수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였고 2020년 12월 기준 45개 지점을 운영하며, 시장 2위에 올라있다.

출처: [주간경향\(링크\)](#), [뉴데일리경제\(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